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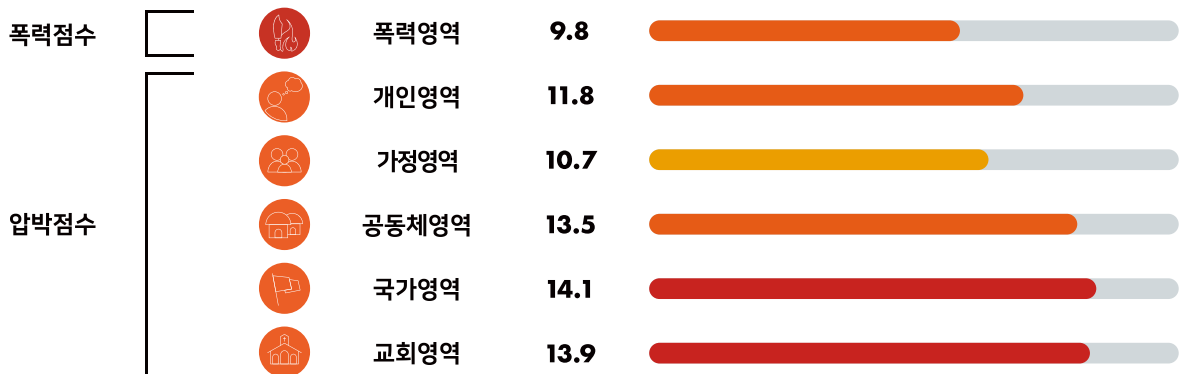
라오스 (LAOS)

기독교 박해지수
22위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2022년 10월, 라오스에서 한 목사가 살해당한 사건과 이후 두 건의 살인 사건은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폭력적인 대우는 드물지 않게 받아왔지만, 살인 사건은 최근 몇 년간 거의 발생하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라오스의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다. 공산당 당국은 등록된 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며, 모든 모임은 행정당국에 신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불법 모임'으로 간주되어 은밀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라오 복음교회(Lao Evangelical Church, LEC)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교단임에도, 전국적으로 약 75%의 교회들이 영구적인 예배당을 갖추지 못해 신자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로 겪는다. 이들은 불교-정령신앙 공동체 밖으로 스스로를 내몬 자로 간주되어 가족들(라오스 가정은 보통 3세대가 한 지붕 아래 함께 거주한다)과 지역 당국으로부터 강한 압력과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과 당국은 종종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지역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를 구하며, 그 결과 개종자는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라오스 (Laos)

국가 정보

지도자 : 통룬 시술릿 대통령

인구 : 7,737,000 명

기독교인 수 : 224,000명¹

주요종교 : 불교

정부형태 : 공산당 주도 국가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224,000	2.4
불교	4,171,000	95.8
민속종교	3,171,000	1.7
불가지론자	69,500	0.1

출처²

라오스는 1975년 이래 라오 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이 통치해 온 단일 체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공화국이다. 2022년 12월에 소넥사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이 신임 총리로 선출되었지만, 이는 제한적인 변화만을 가져왔다. 1980년대에 일부 경제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는 여전히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점차 증가하는 형태로 지속적인 원조를 받아오면서, 라오스는 기반시설 수요와 부채 측면 모두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제 인권 감시단체들은 라오스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극히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해 왔다. 이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소수 집단에 대한 박해 때문이다. 당국은 언론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고 심지어 사상 주입까지 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자유로운 언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SNS에서 불만이나 우려를

표출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단속하고 있다. 한편, 실제로는 전통과 신념에 기반한 마을법이 전국적인 법률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흔하다.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주로 지방 당국과 마을 지도자들로부터 비롯된다. 이들은 민족 전통을 지키고 공산주의적 관리 체계와 관료주의를 유지하며 마을의 평화를 보존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한 목사가 살해된 사건과 그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들은 라오스의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에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기독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특히 농촌 지역의 지방 당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현재도 라오스는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으며, 종교는 여전히 당국이 경계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불교는 어느 정도 국가의 전통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기독교는 외래 종교로 여겨지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서구 가치와 연관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산주의의 적으로 인식된다. 중국에 대한 의존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강조 역시 강화되는 추세이다.

2024년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World Christian Database) 추정치에 따르면, 라오스 인구의 53.9%는 불교도이며, 주로 테라와다 불교 전통을 따른다. 41%는 중국 민간신앙을 제외한, 자신들의 민족 또는 부족의 조상과 관련된 토착 종교를 신봉한다. 여러 민속 전통이 불교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수치는 일부

¹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²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중복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인구의 2.8%는 기독교인이다. 주요 기독교 교단은 로마 가톨릭교회, 라오 복음교회(LEC),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이다. 그 외 복음주의, 침례교, 오순절교, 감리교, 루터교, 하나님의 성회 등 다양한 교단들도 활동하고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루앙남타(Luang Namtha), 풍살리(Phongsaly), 후아판(Houphan)과 같은 북부 지역, 캄무안(Khammouane)과 볼리캄사이(Bolikhamxay) 같은 중부 지역, 그리고 살라완(Salavan), 세콩(Sekong), 아타페우(Attapeu)와 같은 남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기독교인 공동체들

해외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현지 교회와 교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에 위치한 라오 복음교회(LEC) 두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참석이 허용되었다. 해외 기독교인들 중에는 외교관 직원 공동체도 포함되어 있으며, 경찰의 감시 체계를 통한 제한을 받고 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에는 로마 가톨릭교회, LEC,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가 포함된다. 이들은 당국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고 있으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LEC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당국이 지도자 선정이나 기독교 인쇄 자료 승인에 관여하는 암묵적 관행이 존재한다.

기독교 개종자들

불교나 애니미즘(정령신앙)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지역 당국, 가족, 지역 사회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압박과 폭력을 경험한다. 개종은 정부 권위에 대한 위협이자 가족 및 공동체의 결속을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종자가 신앙을 전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을 경우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압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에는 복음주의, 오순절교, 감리교 계열이 포함된다. 정부는 ‘불법 모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교회는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로 분류된 세 개의 정부 승인 교단 중 하나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비밀리에 모임을 가져야 한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공산주의적 억압과 독재적 편집증의 결합

라오스는 세계에 남아 있는 다섯 개 공산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념에 철저히 충실한 지역은 일부 지방과 마을에 한정된다. 이들 지역은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한 만큼, 기독교를 포함한 외래적이거나 서구적인 영향에 대해 철저히 반대한다. 지역 당국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를 활용하여, 기독교인을 향한 억압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다.

씨족 억압

정령신앙과 기타 부족 전통은 라오스 전역, 특히 농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부족 전통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가족과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진다. 마을 지도자들과 가족들은 공동체의 전통적인 정령들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공동체에서 내쫓기도 한다.

종교적 민족주의

대다수 인구는 테라와다 불교를 신봉하며, 이는 라오스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 지역 전문가는 “불교는 산악 지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소수 민족과 외딴 마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령신앙과 영혼에 대한 두려움도 라오스 불교 문화의 일부를 이룬다”고 덧붙였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은 라오스 문화 전반에서 널리 용인되고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은 가장 강한 수준의 압박을 받는다. 지역 공동체 내에서 조롱과 고립을 당하며, 직장에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는다. 가정에서는 구타를 당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신앙을 포기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기도 한다. 여자아이들 또한 학교에서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할 수 있으며, 남학생에 비해 신체적 폭력은 적지만 여전히 학대의 대상이 된다. 기독교 여성은 결혼 상대자로 선호되지 않기 때문에, 미혼 기독교 여성은 더욱 많은 모욕과 위협에 직면하며,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은 존재'로 간주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폭력 - 신체적

남성

교회 지도부는 대체로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역할은 당국의 주요 탄압 대상이 되곤 한다. 목회자들은 교회에 대한 공격과 당국에 의한 구금에 특히 취약하다. 석방을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 요구되며, 구금 중에는 가혹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다. 남성 기독교인들은 직장에서 박해와 차별을 겪으며, 정부 및 군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해고되기도 한다.

학교에서도 기독교 남학생은 신체적 구타와 괴롭힘을 더 자주 당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생계 및 직업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벌금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구금
- 폭력 - 신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22	74
2024	21	75
2023	31	68
2022	26	69
2021	22	71

WWL 2024에서 살인 사건으로 인해 전례 없는 6.6점 상승이 있었던 이후, 현재 전체 점수에서 1점 감소가 나타났다. 이 하락은 폭력 점수가 WWL 2024에서 11.3점에서 9.8점으로 떨어진 데 기인한 것이다. 반면, 평균 압박 점수는 소폭 상승했으며, 특히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압박이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2월:** 사반나케트(Savannakhet) 주 손부리(Xonboury) 지구 칼럼 반케(Kaleum Vanke) 마을에서, 마을 당국이 가정교회 예배를 중단시키고 성경책을 불태웠으며, 교회 폐쇄를 요구했다.
- **2024년 6월 22일:** 캄무안(Khammouane) 주 싸이부아통(Xaibouathong) 지구 타헤(Tahae) 마을에서, 예배를 준비하던 중 목회자를 포함한 기독교인 6명이 체포되었다.
- **2024년 7월 23일:** 우돔사이(Oudomxay) 주에서 라오 복음교회(LEC) 지역 책임자이자 크무족(Khmu) 목회자인 통캄 필라반(Thongkham Philavanh) 목사가 자택에서 총에 맞아 살해되었다. 지역 기독교인들에 따르면, 통캄 목사는 당국의 밀착 감시를 받아왔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기독교 활동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공격 또는 폐쇄된 교회 및 기독교 건물	구금된 기독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받은 기독교인
2025	9	31	10*	100*
2024	8	15	4	2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불교나 토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해야 한다. 신앙이 발각될 경우, 마을 장로들과 그 보좌들은 개종자에게 추방을 위협한다. 많은 라오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phi, 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믿으며, 이 정령을 노하게 하는 일을 두려워한다. 마을 공동체는 기독교인들에게 마을을 파멸시키지 않으려면 일정 기한 내에 신앙을 철회하라고 강요한다. 이 같은 압박이 효과가 없을 경우, 기독교인들은 폭력적으로 마을에서 추방되기도 한다.

가족 영역

불교의 가르침과 정령신앙의 관습 및 믿음은 라오스 정체성의 일부로 여겨진다. 기독교인들은 이에 순응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어린이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 의해 불교 사찰 행사에 참석하고 관련 의식을 행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다. 독실한 불교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교육 기회나 취업에서 차별받는 일이 흔하다. 또한 기독교 식 장례를 치르려 할 경우, 방해받거나 심지어 체포되



©Alamy

는 경우도 있다. 한 국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독교인은 마을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나 구입한 땅에 직접 매장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 비용 뿐 아니라, 마을 당국은 정령을 달래기 위해 돼지나 소를 잡으라고 요구하기도 하며, 이는 결국 신자들에게 정령신앙 의식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라오 복음교회(LEC)에 등록된 농촌 교회들조차도 라오스 내에서 세례식을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동체 영역

기독교인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엄청난 수준의 압박을 받고 있다. 북부의 루앙남타(Luang Namtha), 풍살리(Phongsaly), 후아판(Houaphan) 주, 중부의 사반나케트(Savannakhet), 볼리캄사이(Bolikhamsay), 캄무안(Khammouane) 주, 남부의 살라완(Salavan), 아타페우(Attapeu) 주 등에서는 마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 당국이 기독교인을 괴롭히고, 감시하고, 체포하며, 강제로 추방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회 측에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의 사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한다. 공공 부문(군대 포함)에서 기독교인으로 밝혀진 경우, 해고되거나 승진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 기관에서 퇴직한 기독교인의 경우 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 이

번 보고 기간 동안, 라오스 농촌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했다는 보고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국가 영역

라오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 권리는 실제로 존중되지 않는다. 공산당 정부 관리들이 압력을 가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인권 침해는 농촌 마을 지도자들과 같은 지역 수준에서 발생한다. 이들 지역 지도자들은 주로 민족 전통을 보존하고 일정 부분 공산주의 관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기독교인이 공공 부문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 다른 후보자보다 경험이나 실적이 더 뛰어나더라도 불구하고 고위직 승진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일이 잦다.

교회 영역

교회 활동의 상당수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315호 포고령(Decree 315)'에 명시되어 있다. 비밀경찰과 제복을 입은 경찰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여 참석 인원을 세고 설교 내용을 기록한다. 정부는 도시 지역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자주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 이번 보고 기간 동안, 성경과 기타 기독교 자료에 대한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라오스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라오스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공동체와 그들의 활동은 당국에 의해 면밀히 감시받고 있다 (ICCPR 제17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ICCPR 제26조)
- 기독교인 아동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불교 교육을 강제로 받으며, 불교 의식과 축제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ICCPR 제18조, 아동권리협약(CRC) 제14조)
- 국가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ICCPR 제18조, 제21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하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고 있다 (ICCPR 제18조, 제19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살해당하고 있다 (ICCPR 제6조 제1항)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투옥되고 있다 (ICCPR 제9조)

라오스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주류 불교 교리를 따르지 않는 불교 신자들은 승려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일부 지역의 소수 민족 공동체 중에서는 특히 몽족 (Hmong)이 가장 심한 억압을 받아왔으며, 이들은 대개 정령신앙 또는 기독교 신앙을 따른다. 무슬림, 힌두교도, 바하이(Bahai) 신자들도 라오스 내에서 극소수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또한 공산주의 국가 당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오픈도어의 라오스 사역

오픈도어(Open Doors)는 라오스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현지 신자들을 돕기 위해, 지역 교회 파트너들과 전문가들, 뜻을 같이하는 단체 및 그룹들과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다. 신자들이 겪는 박해에는 신체적 공격, 가족과 공동체로부터의 추방 등이 포함된다. 오픈도어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동행, 구호 및 실질적 지원, 그리고 옹호 활동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 또한, 오픈도어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라오스의 박해받는 신자들을 강화하기 위한 사역을 지역 파트너, 전문가, 협력 단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 기독교 자료 및 문서 제공
- 리더십 훈련
- 제자훈련 프로그램
- 사회·경제적 자립 개발 프로그램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 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